조선
주체111
(2022)
11
(797)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오늘의 조선

체 육

자 연

천연기념물

표 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원아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중앙통신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승 룡

2

62

110

126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올해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로 책정되고 성과적으로 추진되여온 련포온실농장건설이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되였다.

대규모남새생산기지인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이 10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련포온실농장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고 번영의 재부이며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이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중대사항으로 관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동부전선의 공군기지를 대규모온실농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은 불과 230여일동안에 거대한 온실농장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여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가 가슴뿌듯한 장관을 펼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무연하던 벌판에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은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는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련포온실농장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동해기슭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보배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세계 최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가 성대히 준공하게 된것은 함경남도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기쁨이고 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부지확정과 력량편성,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하시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은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과 뜻, 숨결과 보폭을 같이하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과 우리 국가특유의 국풍인 군민대단결의 힘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부감하시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몇달동안에 이처럼 희한한 대농장지구를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은것은 오직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서 혁명군대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건설부대 지휘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매남새온실을 비롯한 생산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품종을 더욱 늘이고 온실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며 중평온실농장과 생산경쟁을 벌리면서 실지 함경남도인민들이 덕을 보는 농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서 인민들에게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련포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각 도에 건설하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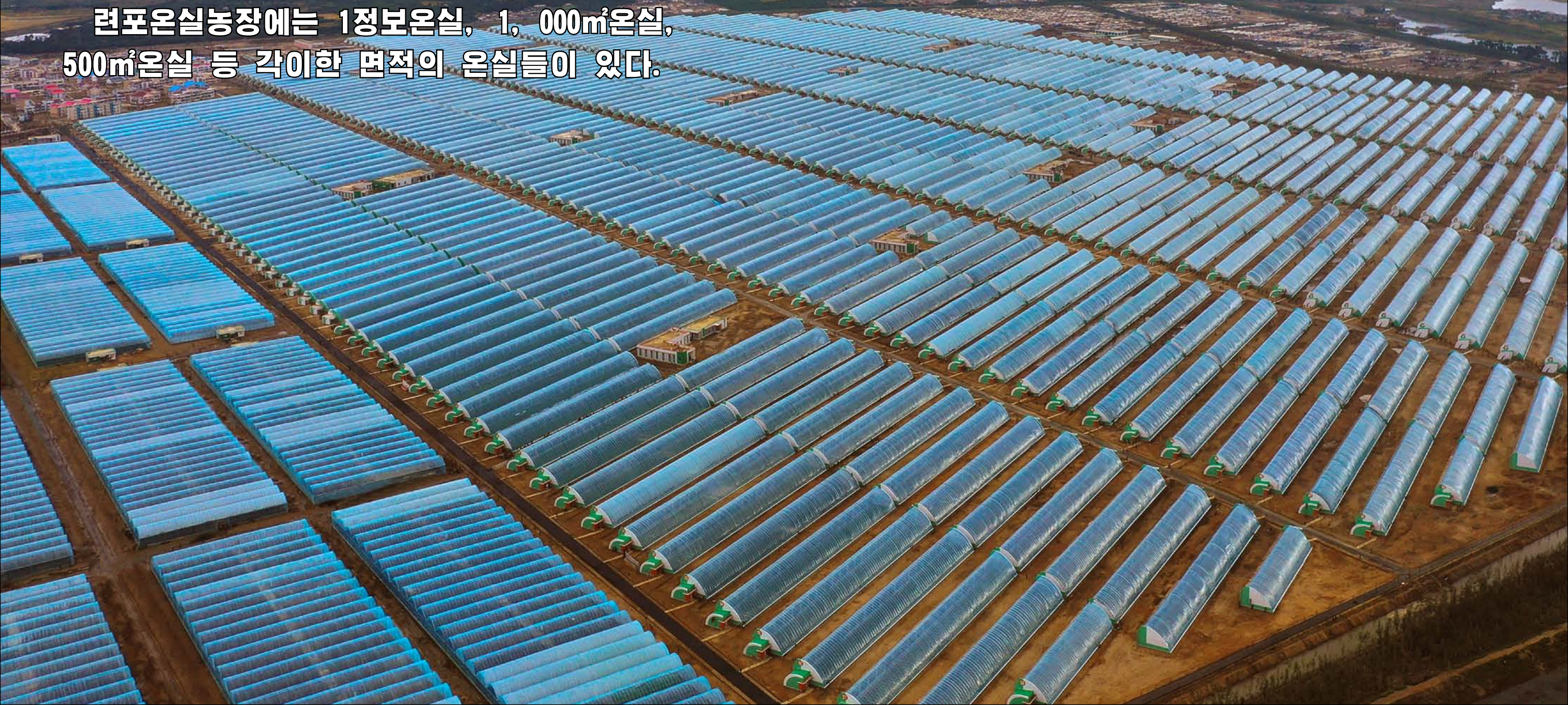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동지께서는 련포지구에서 공산주의농촌마을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련포전역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결사관철의 헌신적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올해 당과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특별소식
인민군장병들은 련포창조정신,련포불바람을 일으켜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을 불과 230여일동안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생산면적 100정보
련포온실농장에는 1정보온실, 1, 000㎡온실,
500㎡온실 등 각이한 면적의 온실들이 있다.

13
12

10

동해기슭에 일떠선 련포온실농장마을은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건설된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이다.

113개 호동에 무려 1,000여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99가지의 각이한 형식을 갖추고 일떠선 마을에는 교육, 보건기관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가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 혁명학원 원아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고 소년단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창립일을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박정천동지, 리병철동지가 동행하였다.

혁명학원출신의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일군,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75년에 걸친 연혁사는 우리 당이 혁명선렬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력사, 혁명위업계승에 명줄을 걸고 혁명가후비육성에 정성을 기울여온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의 력사, 정규적혁명무력의 력사와 맞먹는 혁명학원들의 성스러운 장로에 빛나는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학원들이 주체혁명의 원기둥이며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떠메고나가는 핵심골간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으로서의 중대한 사명과 기본임무에 맞게 교수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 선구자가 되며 혁명대오의 제일선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견인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조선로동당의 학원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민족만대, 혁명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억척으로 담보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을 안겨주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터치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을 기념하는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변심없이 받들고 따르며 주체혁명위업을 결사옹위해갈 원아들의 충성의 열정과 기백이 용솟음치는 담찬 모습에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하시며 손을 높이 드시여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최고전당, 우리 위업의 억년 청청함을 담보하는 이런 위대한 혁명의 집을 가지고 혁명의 원피줄기를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고 더없는 긍지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선렬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가는 견결한 투사들로 알차게 키워 우리 혁명의 핵심중의 핵심이 되게 하고 전진과 발전의 선구자가 되게 하는것이 당중앙의 혁명가후비육성사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백두의 넋을 지니며 성장하는 조선로동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억년 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종장이 되라》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특별소식
결사옹위
일심단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백두의 넋을 지니며 성장하는 조선로동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10월 1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조종실, 저격무기강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원에서 현대화된 교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는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교수방법들과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원기둥, 원피줄기인 혁명학원의 학생들을 문무를 겸비한 견결한 혁명가, 우리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면 건전한 사상과 우수한 지적능력,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 고상한 도덕륜리가 몸에 푹 배인 참된 인격자들로 준비시키는데 교육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생들의 격술 및 수영훈련을 보아주시였다.

졸업반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도 보아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생들이 명중사격으로 련이어 만점을 쏠 때마다 못내 대견해하시며 환한 미소속에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군사인재후비들로 준비해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사격에 참가한 그들모두가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아들들답게 조선로동당의 핵심중의 핵심, 혁명의 기둥으로 활약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바치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식당에 들리시여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밥맛과 국맛도 보아주시고 원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어떻게 가공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을 그들의 구미와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교수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학교,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우의 학교로 만드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강화의 원칙적요구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인 혁명학원의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 학원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학원의 책임일군들에게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우리 당의 아들들인 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태양의 축복을 받은 혁명가유자녀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기념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였다.

강반석혁명학원 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이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기념 련환모임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온 영광의 75년》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7일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조선혁명의 시원이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 《ㅌ. ㄷ》가 결성된 뜻깊은 날에 교정에 모시는 꿈만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중견간부양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여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당간부대렬의 장성강화에 적극 공헌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앙과 뜻과 의지, 실천을 같이하며 당의 강화발전과 성스러운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더욱 견결하게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학교 1년제반 첫 졸업생들에게 친히 써주신 귀중한 친필교시야말로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관통된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있는 만고불멸의 대명제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당의 성격과 작풍의 진수가 담긴 명제를 학생들의 심장마다에 삶과 투쟁의 근본으로 깊이 새겨줄 때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복무를 체질화한 우리 당의 진정한 일군들로 육성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교육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간부학교의 교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도와 관련된 중핵적인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자기의 백년대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자면 당건설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핵심들을 육성하는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맡고있는 당간부후비육성의 원종장사업을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대학우의 대학으로 만들어 그를 모체로 하여 각급 당간부양성기관들의 교육수준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려는 당중앙의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려진 뜻깊은 날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사업을 우리 당의 백년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게 혁신해나가는 큰 보폭을 내짚자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등단하시자 당의 강화발전과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영광,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주체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가 활화처럼 분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강화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있고 혁명의 장래를 위해 중차대한 력사적과업으로 더욱 부각되고있는 시기에 당의 핵심골간들을 육성해내는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맡은 혁명임무수행에 분투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창당초기부터 당간부양성의 원종장을 중시하고 당의 핵심골간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조선로동당의 령도와 빛나는 생활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위대하고 업적이 거대하다고 해도 당의 후비들을 쟁쟁하게 키울수 있게 교육체계를 완비하지 못한다면, 하여 당의 위업을 떠맡아나갈 후비들이 잘 준비되지 못한다면 당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기는커녕 미래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후비육성체계, 간부양성사업에 새로운 혁신성과 발전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항상 창당초기의 숭고한 리념과 각오를 견지하고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당 본연의 혁명적당풍을 체질화한 당일군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당중앙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주체혁명의 장래발전의 필연적요구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사상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시대에 부합되게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 령도술을 높여나가는 력사적투쟁행정에 탐구, 정립되고 실현되고있는 중요한 사상들과 리론들, 실천경험들은 당간부육성사업에 적극 구현되고 지체없이 학술적으로 종합체계화, 풍부화되여 전당강화와 전망적발전에 작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10년간 조선로동당이 자기 발전행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새시대 당건설방향, 학교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적인 문제들을 론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간부학교의 교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도와 관련된 중핵적인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자기의 백년대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자면 당건설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핵심들을 육성하는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맡고있는 당간부후비육성의 원종장사업을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간부학교가 우리 당의 당건설중시사상과 후비육성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 우리 당이 50년, 100년, 몇백년의 후사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유능한 당일군, 능숙한 정치활동가들을 키워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당 간부육성사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열렬한 호소로 강의를 결속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기념강의를 마치시자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접하게 된 무한한 감격에 넘쳐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최장의 집권사를 기록하고있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탄생한 력사의 순간을 크나큰 흥분속에 체감하며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투쟁방침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숭고한 리념과 성스러운 위업의 빛나는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일심전력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특별소식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실천조치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실전화된 군사훈련들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군사훈련은 미해군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련합군의 대규모해상전력이 조선반도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진행되였다.

불가피한 정황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9월하순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정세와 전망을 토의하고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시키고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9월 25일 새벽 나라의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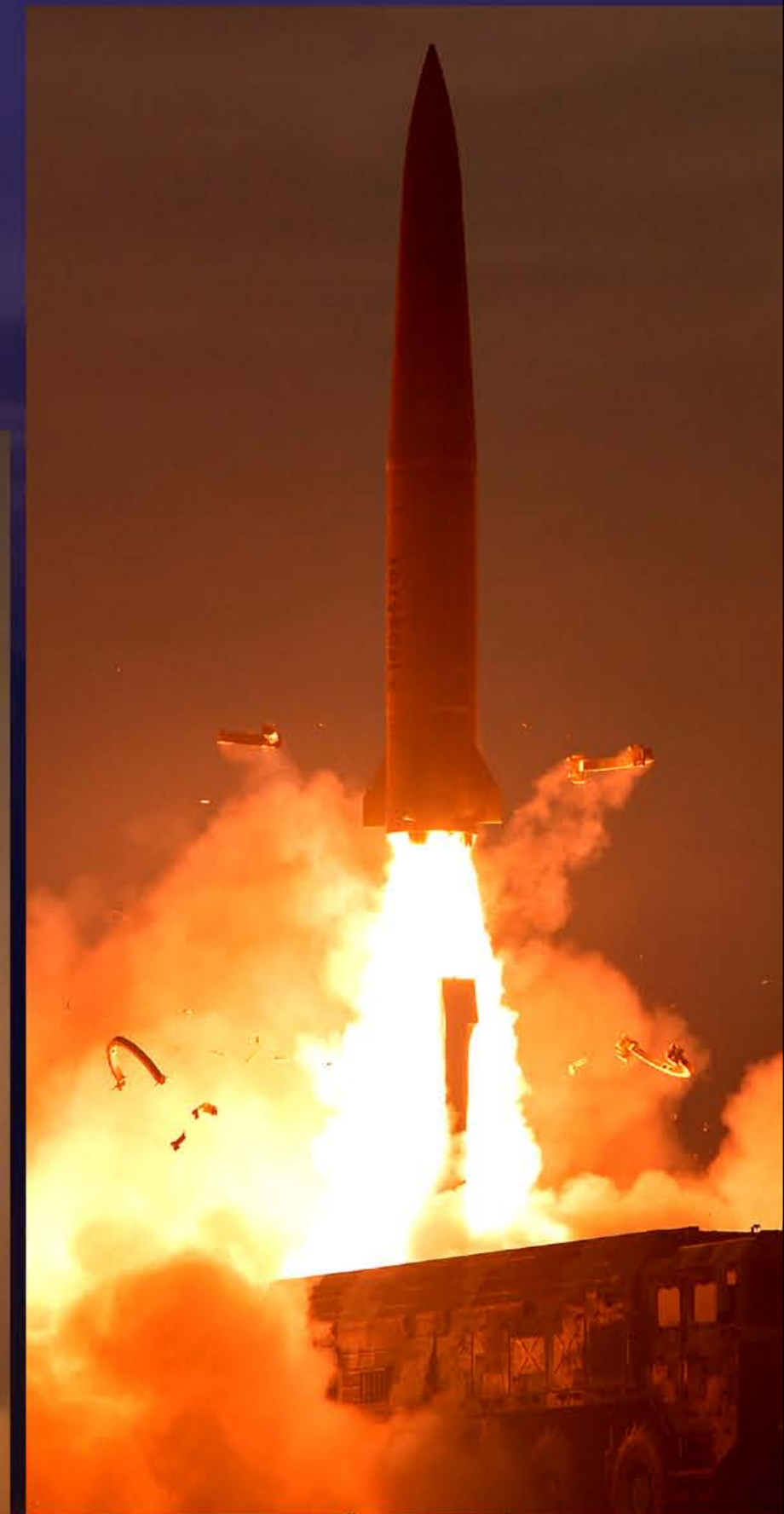
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동해상의 설정표적상공으로 비행하였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기폭믿음성이 검증되였다.

또한 실전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수중발사장 건설방향이 확증되였다.

9월 28일 남조선작전지대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 발사훈련에서도 핵탄두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에서도 해당 설정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및 산포탄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하였다.

10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로 일본렬도를 가로질러 4,500㎞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하였다.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군사지휘시설타격을 모의하여 기능성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탄도미싸일명중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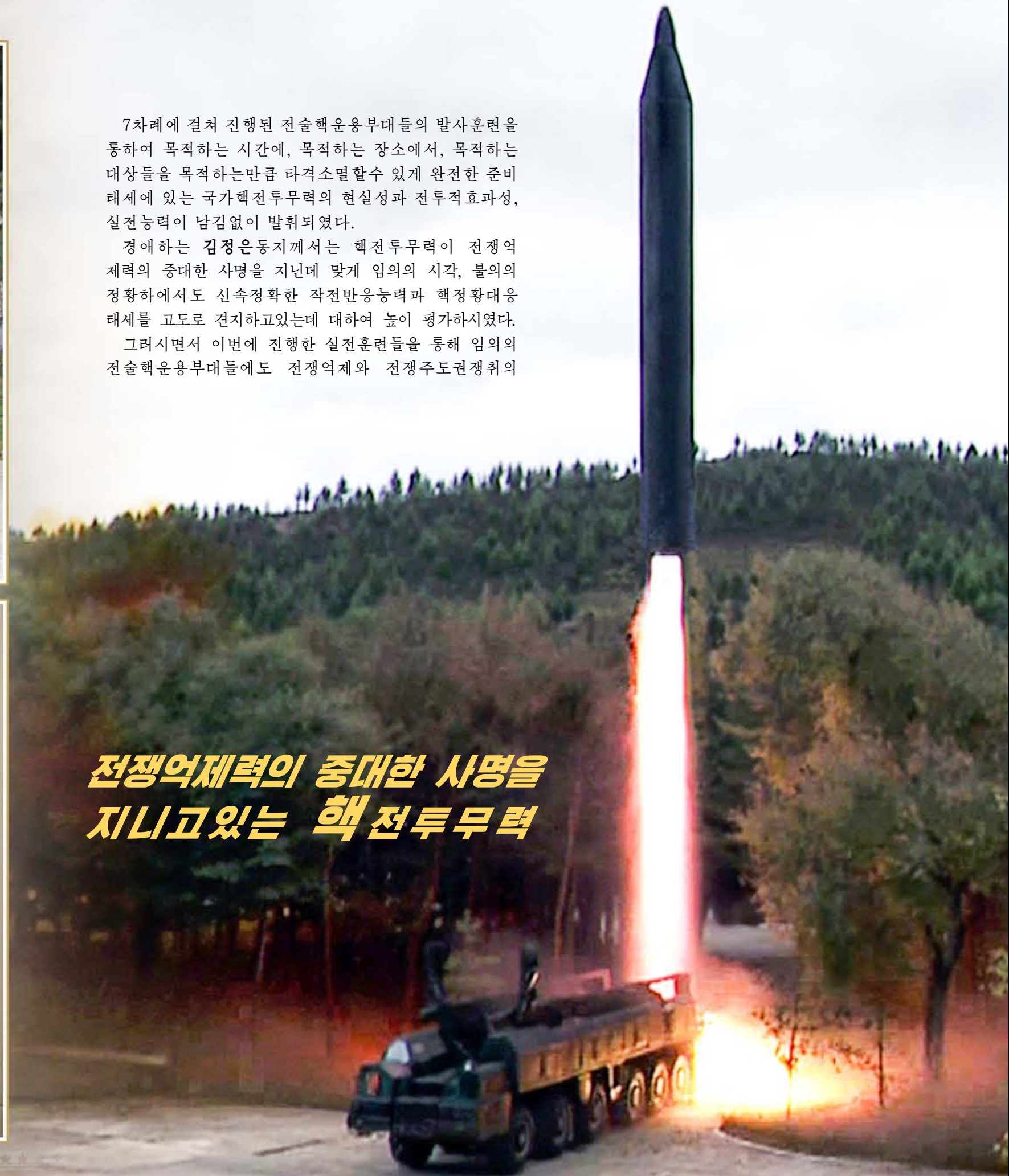
특별소식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만큼 타격소멸할수 있는 **핵**전투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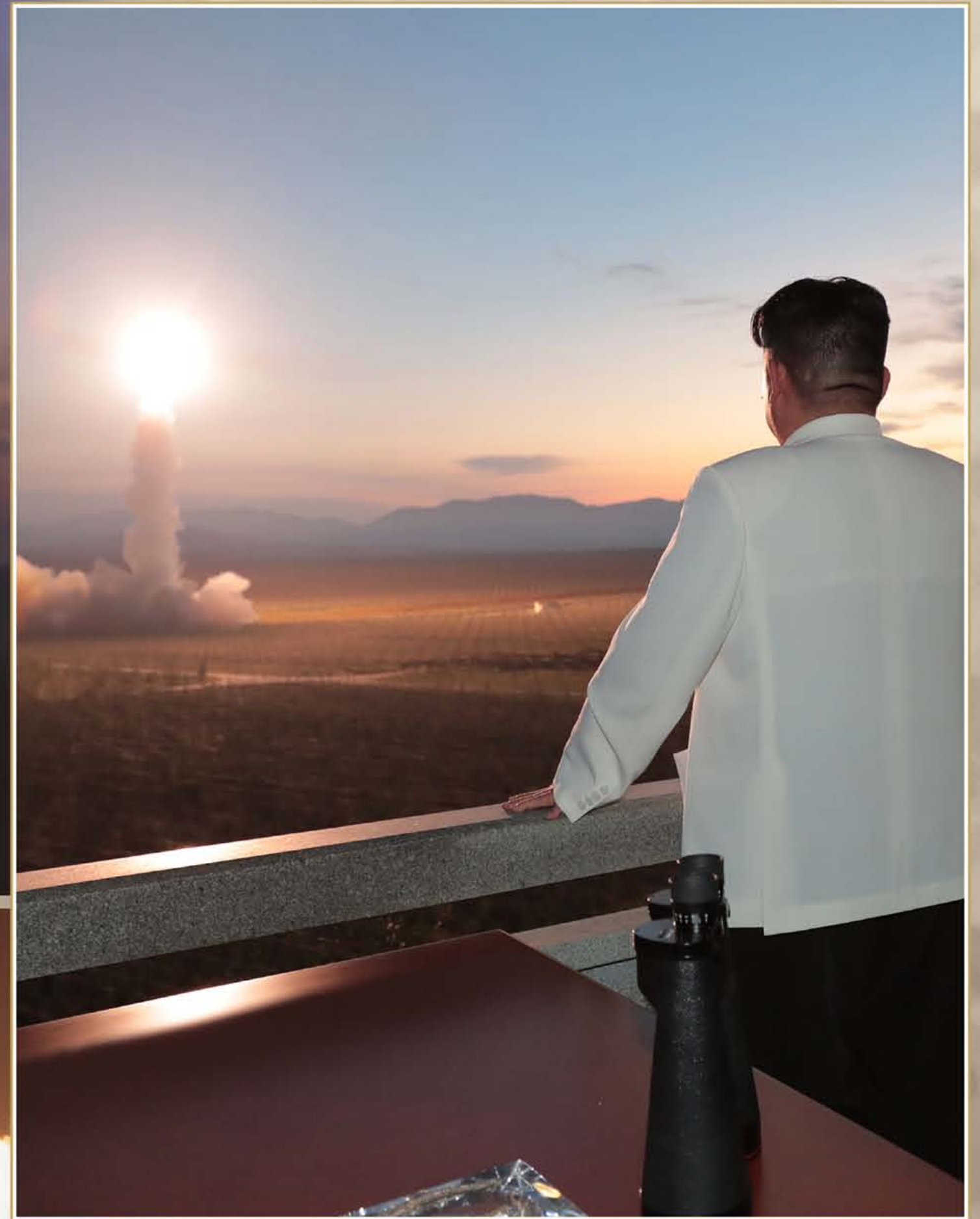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만큼 타격소멸할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국가핵전투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는 핵전투무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간과할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움직임을 빠짐없이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응한 모든 군사적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막중한 군사적임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며 이는 우리의 전쟁억제력 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간과할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움직임을 빠짐없이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응한 모든 군사적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투무력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반도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적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10월 6일과 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사훈련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10월 6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서부지구 공군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합동타격훈련은 적군사기지를 모의한 섬목표에 대한 공군비행대들의 중거리공중대지상유도폭탄 및 순항미싸일타격과 각종 근접습격 및 폭격비행임무를 수행한데 이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순차별 화력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을 통하여 전선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작전동원준비상태와 전투실력이 불의적으로 엄격히 검열되였으며 결과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준비태세의 정확성과 고도의 실전능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10월 8일 조선동해에 재진입한 미해군항공모함을 포함한 련합군해군의 해상련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있는 정세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서는 공군사단, 련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타격과 공중전수행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증하며 비행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수행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공중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특별소식

이어 이날 밤 적작전비행장타격을 모의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제시된 전투정황에서의 신속대응능력과 군사적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성능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전투력강화의 나날들에 부단히 련마해온 우수한 실전능력과 조선인민군특유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불의적인 실전상황에도 능동적으로 정확히 대처할수 있게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는 군사정세상황을 놓고볼 때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전쟁준비태세와 군사적대응능력강화는 우리 혁명앞에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이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더욱 확고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주적관, 주체적인 전쟁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최전방과 우리의 자주권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철통같이 지켜나갈것을 호소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전투력강화의 나날들에 부단히 련마해온 우수한 실전능력과 우리 군대특유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는 군사정세상황을 놓고볼 때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전쟁준비태세와 군사적대응능력강화는 우리 혁명앞에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이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더욱 확고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주적관, 주체적인 전쟁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최전방과 우리의 자주권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철통같이 지켜나갈것을 호소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혁한 군공을 세운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요구로부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조치들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10월 12일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의 전투적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들은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1만 234s를 비행하여 2,000㎞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전반의 정확성과 기술적우월성, 실전효과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위력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립증한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울린 미싸일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수 있게 핵전략무력운용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끊임없는 국가방위력강화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를 위해 조금도 드팀수 없는, 드티여서는 안될 일관하고 불변한 우리의 혁명방침, 투쟁기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핵전투무력이 더욱 정확하고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뜻깊게 경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7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7돐경축 만수대예술단, 국립교향악단 합동공연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7돐경축 제3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이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황남의 가을

나라의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가을풍경이 펼쳐졌다.

나라의 제일 큰 쌀독을 책임진 주인의 본분을 지켜 불리한 기상기후와 때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를 이겨내며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다.

재령벌, 연백벌 등 도안의 모든 전야가 가을걷이로 끓어번지고있다.

봄내여름내 알심있게 가꾼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모습이 황금빛으로 단장된 포전마다에 비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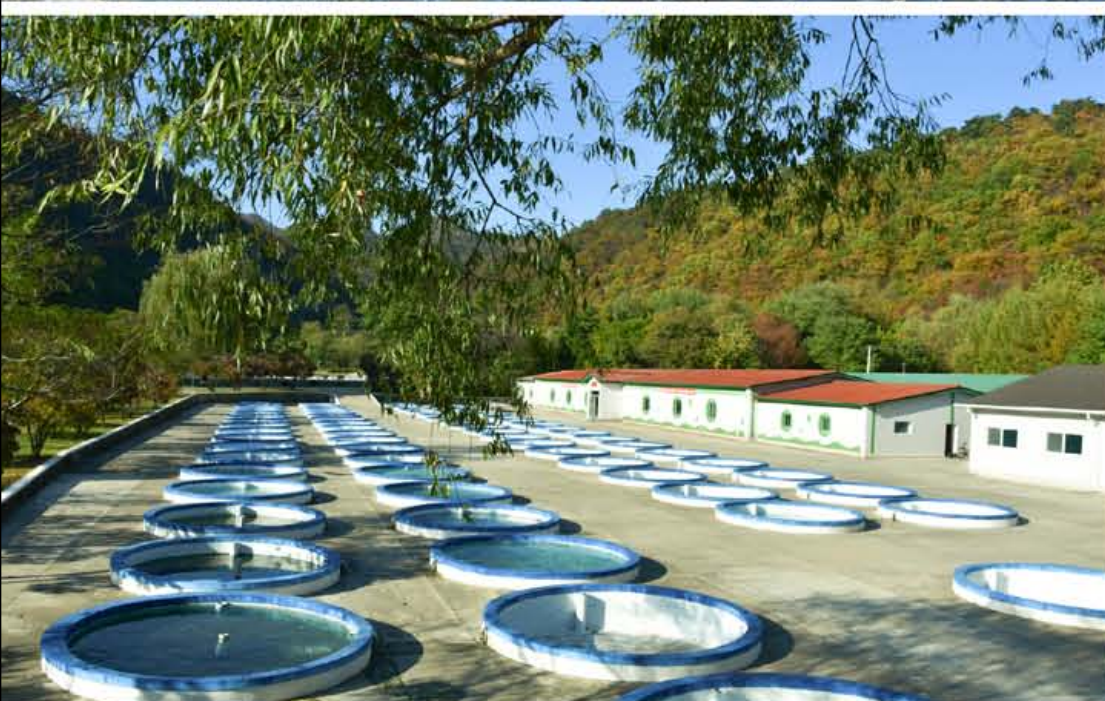
한해농사의 결속을 앞두었던 지난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안의 농장들에 배려하여주신 수천대의 새 농기계들이 벌방지대로부터 산골에 이르는 그 어디에서나 힘찬 동음을 울리며 그들의 열의를 더욱 앙양시키고있다.

온 한해 위대한 당의 사랑이 끝없이 물결쳐온 그 길로 애국의 옥백미, 보답의 열매를 산같이 실어보내기 위해 총매진하고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 10월중순현재 지난해보다 벼가을은 한주일 앞당기고 낟알털기에서는 1. 5배의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으며 수많은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가 배출되였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공산주의로 가자!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실현된
신창양어장

평안남도 은산군에는 사시절 솟구치는 맑은 샘물을 원천으로 하는 신창양어장이 있다.

6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조직된 양어장은 인민들의 식탁우에 이름난 맛좋은 물고기료리를 다 올려주고싶은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7차례나 현지지도하시고 수백차의 교시를 주시면서 양어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주신 곳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5월과 주체108(2019)년 4월 이곳에 찾아오시여 나라의 양어기술발전의 척도를 보여주는 표준양어장,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본보기단위, 교육단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해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주시였다.

자연지리적으로나 생태환경적으로 양어하기에 가장 리상적인 곳에 자리잡고있는 신창양어장은 생산면적은 물론 생산량도 대단하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줄기찬 노력속에 양어면적은 설립초기에 비해 6배로 늘어났다.

자연물흐름식체계와 함께 재순환리용체계도 확립되여있어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드는 양어못들에서는 철갑상어와 칠색송어, 룡정어, 잉어, 열묵어 등 랭수성 및 온수성물고기들이 욱실거리고있다.

지난해 양어못구역에는 주변의 멋진 경치와 어울리는 낚시터들이 새로 꾸려졌다.

양어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은 첨단양어기술에 의거하여 해결되고있다.

최근년간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장수어와 정장어, 쏘가리 등 여러 품종의 물고기양어를 성공시켰다.

전국각지의 양어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이곳의 양어기술과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고있다.

신창양어장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들은 날이 갈수록 인민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룡악산에 휘날리는 소년단야영기

-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오는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야영생활이 흘러가고있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립날자를 정해주시였으며 이름도 명명해주신 수도의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개건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주체105(2016)년에 훌륭히 개건된 야영소의 수용능력은 1, 000명이다.

응원열기로 하여 경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3일, 5일, 7일을 한주기로 야영을 하는데 7일야영이 기본이다.

부모의 곁을 떠나 동무들과 함께 외지생활을 처음 해보는 야영생들이 제일 기다리는것은 뭐니뭐니해도 룡악산등산이다.

해발높이가 292m이고 경사도가 30°되는 룡악산의 등산로정을 따라 골짜기도 지나고 바위도 톺아오르며 몸과 마음도 단련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다져가는 그들이다.

뽀트장과 야외롱구장, 료리실습실, 전자오락실 등도 야영생들의 희열과 랑만을 자아내는 곳들이다.

자신들의 재능이며 자기 학교의 자랑을 펼쳐보이는 소년회관에서의 련환모임도 무척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유쾌한 야영의 나날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듯싶어 저녁늦게까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들이기에 야영각의 창가마다에 밤깊도록 불빛이 흐르고있다.

야영소의 훌륭한 생활조건 그리고 야영생들의 과외활동과 일과생활을 친부모의 정으로 돌보는 이곳의 교직원들로 하여 학생소년들의 야영기간은 한생토록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소중히 새겨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다심한 어머니의 정으로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서 기쁨을 찾는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러한 심정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평양애육원의 교양원들도 다를바 없다.

평양애육원은 후대들을 위한 일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주체103(2014)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건설된 원아들의 보금자리이다.

교양원들의 나이와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원아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정을 기울이는 마음은 하나같다.

낮시간에는 담당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유치원과정안에 따르는 교육을 진행하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과외교양원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준다.

《공부선생님》으로 불리우는 담당교양원들은 공부와 여러가지 지능놀이를 통하여 원아들이 자연과 사물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 천성적인 소질을 찾아 재능을 계발시키고있다.

놀이시간에는 좋아라 뛰여노는 아이들이 상할세라 사려깊은 눈길로 살피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재미있는 놀이도 한다.

원아들이 잠자리에 들면 과외교양원들은 세찬 장난으로 덞어진 아이들의 옷을 다듬기도 하고 차버린 이불깃을 꼭꼭 여며주기도 하며 날이 새도록 보살핀다.

하기에 원아들은 교양원들을 《우리 선생님》, 《우리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고있다.

이곳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이 원아들을 한명씩 맡아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있다.

원아들은 구내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나면 달려가 안기고 설날이나 3. 8국제부녀절, 어머니날을 비롯한 명절이면 그들에게 제법 축하장도 쓰고 꽃다발도

만들어 안겨주고있다.

2년간의 애육원생활을 마치고 초등학원, 중등학원에 가서도 원아들은 자주 이곳을 찾아온다고 한다.

오늘도 평양애육원의 창가마다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원아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박의철

평양애육원

인민체육인 김명남

세계기록을 9차례 갱신한 력 기 강 자

인민체육인 김명남은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9차례에 걸쳐 세계 새 기록을 수립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이름있는 체육인이다.

평안북도 동림군에서 태여나 13살에 력기를 시작한 그는 주체71(1982)년 전국체육구락부체육경기대회(당시) 력기경기에서 1위를 하여 전문가들의 눈길을 모았다.

그후 기관차체육단 력기선수로 된 김명남은 해마다 국내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고 국내패권을 고수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주체77(1988)년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경기인 제19차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67kg급경기에서 종합 1위를 쟁취하였다. 그리고 그해에 진행된 제59차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종합 3위를 하여 세계적인 력기강자로서의 첫걸음을 뗐다.

더욱 분발한 그는 주체79(1990)년에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쟁취한데 이어 다음해에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하여 세계패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이 나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난 김명남은 제25차,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력기경기들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그는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제19차, 제21차, 제27차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였다.

특히 제27차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70kg급경기에서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세계 새 기록을 수립하여 관중의 절찬을 불러일으켰다.

선수생활을 마친 그는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에 이어 청소년체육학교 력기지도교원으로 사업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김명남은 오늘도 력기선수후비육성사업에 전심하고있다.

방목지의 이채로운 풍경

- 강원도 법동군을 찾아서 -

만년덕등판에서 본 생매산의 아침

무지개비낀 만년덕

해빛이 비쳐드는 산중의 방목지

사진 김성철, 김길성

방목지의 저녁

만년덕등판의 정서

여해리등판에 아침해가 솟는다

국가지정천연기념물 제386호

성균관은행나무

개성시의 력사유적인 고려성균관의 마당에는 두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1. 5m, 뿌리목둘레 6. 3m, 가슴높이둘레 5. 6m이며 나무갓너비는 20m이다.
나무는 약 3m의 높이에서 2개의 큰 가지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가지들을 쳐서 길둥근 모양을 이루고있다.
서쪽의 은행나무는 높이 33. 7m, 뿌리목둘레 6. 7m, 가슴높이둘레 5. 6m이며 나무갓너비는 28. 7m이다.
이 나무는 4m의 높이에서 2개의 큰 가지로 갈라지고 다시 많은 가지들이 뻗어 역시 길둥근 모양을 이루고있다.
잎은 동쪽에 있는 나무보다 먼저 단풍든다.
성균관은행나무는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였다.

사진 라평렬, 글 강수정

13606-2280212

낸 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